총지종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 취임

4월 16일 총지사서…"제2의 창종 정신으로 도약"

1993년 품수 후 요직 거쳐
제16대 통리원장 등 역임해
지성 종령 "교화방편 변화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으로 추대된 지성 대종사가 시대변화에 따른 제2의 창종 정신으로 종단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원했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우인 정사)은 4월 16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등 종단 소임자와 신도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종령 지성 대종사는 이날 종조 원정 대성사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대종사는 "종단 발전과 국가 진호를 위하고 인류의 복지 증진, 중생의 해탈을 위해 종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고 불전에 선서했다.

서울·경인,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전라 4개 교구 신정회 지회장들은 지성 대종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며 종령 추대를 축하했다.

지성 대종사는 이어 법어를 통해 밀교행자들이 대승의 길을 걸으며 사명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종단 교화방편의 변화를 주문했다. 대종사는 "원정 종조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제생의세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방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종단은 그동안 인재양성에 소홀한 감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재 발굴과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봉행사에서 "종령님께서는 시대변화에 동승한 교화방편을 펼치기를 누구보다 염원해 오셨다"며 "넓고 깊은 혜안력의 반야지혜로써 종단의 종지종풍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중생구제와 구국도생의 대표 종단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종령 추대법회에서 대중에게 교화방편의 변화를 주문한 지성 대종사.

내빈으로 참석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진각종은 총지종과 더불어 그동안 함께해온 소중한 인연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인류세계의 정화와 밀엄정토 구현에 늘 함께할 수 있길 서원한다"며 "새로운 종령을 모신 총지종이 불교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사했다.

이 밖에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박정희 서울경인교구 신정회장이 각각 추대사와 헌사를 통해 총지종의 교세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한편 1946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지성 대종사는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종단과 인연을 맺었다. 종조 원정 대성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1993년 3월 품수 후 같은 해 10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항마급 대법사에 승서했다. 통리원 기획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을 비롯해 불교총지종유지재단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 감찰기관 사감원 원장, 제16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월 승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된 지성 대종사는 2월 16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개정 종헌' 공포

제76차 원로회의 인준 거쳐 4월 16일 공포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76차 원로회의에서 인준된 종헌개정안을 공포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4월 16일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되고, 제76차 원로회의에서 인준한 종헌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헌 개정 취지는 지난 30년간 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지탱해온 현재의 중앙종무기관 조직이 격변하는 시대를 헤쳐갈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이라는 지금의 3원 체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종헌은 기존 종헌에 명시된 교육원과 포교원 내용을 삭제해 3원 체제를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는 하위법인 교육법과 포교법 등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종법 개정 시일을 확보하고자 부칙으로 종헌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밖에 종헌상 사문화된 복지원 및 승려복지원에 대한 내용을 현실적 기능과 운영상황을 반영해 명칭을 조정했다. 또한 총무원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이 설립·출연·인수하는 기관에 대해 종단 산하기관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호섭 기자


"만공 스님 정진력 닮아가자"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가 4월 15일 산내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 스님 탄신 153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설정 대종사를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 진영에 삼배를 올리는 모습.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자문위원 대거 위촉…외연 확대 시동

4월 16일 대외협력위원 위촉
정치 · 법률 · 교육 전문가 포진
상진 스님 "종단 운영 함께"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홍승기 한국불자네트워크 상임대표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모습.

태고종이 종단 주요 종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입안 등을 자문할 대외협력자문위원들을 대거 위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4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행정부원장 능해·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과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참석했다.

대외협력자문위원회는 정치, 법률, 교육, 경제 등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상진 스님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종단 발전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으로는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강성룡 법무법인 YK 대외협력본부장, 조창희 한국문화예술경영연구원, 홍승기 한국불자네트워크 상임대표, 천우정 국회정각회 사무국장, 양병갑 소나무종합건설 대표, 조환기 한국예총 상임고문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 교수, 이순학 단국대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남수영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한국불교사에서 적자 종단이었지만, 그간 많은 혼란 등으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면서 "종단은 총무원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종도가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오늘 자리는 이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태고종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를 지상과제로 여기고 전법불사에 매진하겠다"면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지혜와 경험은 종단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태고종 발전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태고종 발전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대작불사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 이런 기회를 준 상진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태고종 위상이 높아지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장학승 36명에 2억3500만원

4월 18일, 장학증서 수여식
등록금 · 연구비 · 생활비 지원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4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승으로 선발된 36명에게 장학금 2억3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국외 2명, 국내 23명, 사찰승가대학원 11명이다. 장학생들은 해당 과정 수료 시(3년 이내)까지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승 가운데 비구 법봉 스님과 비구니 서림 스님이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았다.

앞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종호 스님)는 3월 6일 '제7기 장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기 2568학년도 종단 장학승을 선발했다. 장학승 선발 심사는 종단이 정한 전공 분야,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 종단기여 가능성, 추천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한편 종단 장학승 선발사업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발된 장학승은 총 268명이다. 임은호 기자

